

겨울철 수도계량기 동파 예방·복구 만전

전주시 상하수도본부, 동파상황실 운영 등 동파 관리 종합대책 추진

전주시가 겨울철 한파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수도계량기 동파 사고 예방 대책을 가동하기로 했다.

전주시 상하수도본부(본부장 박용지)는 수도계량기 동파사고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동파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동파 관리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먼저 시는 수도행정과장을 상황실장으로 총 4개 반 8명으로 구성된 동파상황실을 꾸리고, 휴일과 주·야간 구분 없이 수도계량기 동파 예방 및 복구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시는 △30개 △100개 이하 △100개 초과 등 일일 수도계량기 동파 발생



전주시는 겨울철 한파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수도계량기 동파 사고 예방 대책을 가동하기로 했다. <사진=전주시청 제공>

개수에 따른 단계별 비상복구체계를 마련하고, 자체 인력 및 교체공사 시 공업체와 함께 동파된 계량기에 대한 신속한 교체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시는 기존 급강하(영하7℃ 이하)가 예상될 경우에는 기존에 동파 사고가 발생했던 취약 세대와 각 아파트 관리소장을 대상으로 동파 예방 안내문을 문자메시지(SMS)로 발송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는 시민들이 자체적으로 동파를 예방할 수 있도록 동파예방 요령 안내 전단지 3만 매와 보온용 비닐담뱃지 3만 매를 제작해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검침원 등을 통해 배부·설치하고 있다.

박용지 전주시 상하수도본부장은 “수도계량기 동파 시 신속한 교체 처리로 시민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종이팩 수거함 설치로 재활용률 높인다

전주시, 500세대 이상 20개 공동주택에 설치

전주시는 자원순환에 대한 시민 인식을 개선하고, 무심코 버려지는 종이팩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전주시역 500세대 이상의 20개 공동주택에 종이팩 수거함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종이팩의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잘 말려서 일반팩과 멸균팩을 구분해 종이팩 수거함에 분

리배출하면 된다.

앞서 시는 지난달 (사)한국별곡곶재활용협회, (주)사람과환경,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종이팩 자원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이후 사전 신청을 거쳐 접수·선정된 20개소 공동주택에 종이팩 수거함을 설치했다.

이와 관련 종이팩은 일반 폐지와 재

활용 공정이 달라 별도 배출해야 화장지나 미용 티슈 등으로 재활용이 가능하지만 현재 일반 폐지와 함께 배출돼 재활용률이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시는 일반 폐지와 혼합 배출을 방지하고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 종이팩 수거함을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이성순 전주시 청소지원과장은 “이번 종이팩 수거함 설치를 통해 자원재활용이 활성화되고, 올바른 재활용 분



전주시가 종이팩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대규모 공동주택 20개소에 설치한 종이팩 수거함.

리배출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설공단, 사랑 나눔 기술 봉사활동 펼쳐

전주시설공단(이사장 구대식) 직원들이 직무 기술을 활용해 이웃 사랑을 실천했다.

공단은 복합시설운영부 소속 기술직 직원 1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에 사는 홀몸 어르신 가구 3세대를 대상으로 ‘사랑 나눔 기술 봉사 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직원들은 누전에 의한 화재 예방을 위해 각 세대의 전기 시설을 점검하고 낡은 전기 분전함을 새것으로 바꾸고, 무분별하게 분기된 전선들을 깔끔하게 정리했다.

이날 활동은 전기나 기계 등 기술직 직원들의 직무 기술을 심분 활용한 기술 봉사로 소외된 이웃의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진행됐다.

공단은 각 부서별로 부서 특성에 맞는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



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 주차장에 무료료 주차권을 그려주는 주차운영부가 대표적이다.

이와 별개로 각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기술직 직원들로 구성된 ‘사랑나눔 기술봉사단’도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꾸준히 봉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구대식 이사장은 “지역사회 공헌은 공기업의 사명”이라며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예수병원, 환자안전 문화 정착 위한 화재안전라운딩 실시

예수병원은 환자안전 시스템 구축을 위해 경영진과 부서원들이 함께하는 화재안전라운딩을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예수병원은 매년 안전한 병원을 만들기 위해 환자안전 시스템을 마련해 경영진과 부서원들이 함께 참여하고 화재 발생 시 대처방법을 공유하고 있다.

특히 겨울철 화재 안전을 위한 항목을 중심으로 환자안전, 직원 안전, 시설 및 환경 안전, 감염관리 등 환자안전 전관리 시뮬레이션 환경을 조성해 환자안전시스템 구축에 앞장섰다.

예수병원 최극재 시설관리과 과장은 “전북 도민들에게 안전한 병원, 믿고 찾을 수 있는 병원을 만들기 위해 의료환경 개선에 가장 먼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예수병원은 매년 전주 완산 소방서



와 합동 소방훈련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달 전북소방본부에서 개최한 소방훈련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는 등 환자안전문화 정착을 이어가고 있다. /김옥기 기자

(사)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전북지회 송년회



(주)제이엔지가 연말을 맞아 전주시복지재단에 소외계층 후원금 1500만원을 기부했다.

제이엔지, 따뜻한 나눔 동참

연말 맞아 전주시복지재단에 후원금 1500만원 기부

(주)제이엔지(대표이사 박종우)는 지난 13일 연말을 맞아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전주시복지재단(이사장 윤방섭)에 후원금 1500만 원을 전달했다.

지난 2006년 설립된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인 (주)제이엔지는 자체 개발한 지역 시스템이 세 차례 이상 조달청 우수 조달 물품으로 지정됐으며, 30여 건의 특허와 각종 인증 등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현재 전국 110여 개 지방자치단체 등에 지역에너지 시스템을 공급하고 있다.

이 업체는 창립 14주년인 지난 2019년부터 매년 삼천3동에 백미를 꾸준히 기탁하고 있으며, △전주대 등 지역대학에 다수의 장학금 전달 △소아암 환우 돕기 등 이웃사

랑 나눔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또 대한적십자사가 진행하는 ‘쓸쓸이 바쁜 기업 캠페인’ 18호로 등록돼 매월 일정액을 기부하며 지역 내 위기가정을 돕고 있다.

박종우 제이엔지 대표는 “힘들고 외로운 이웃들이 조금이나마 포근한 연말연시를 보내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부하게 됐다. 앞으로도 지역 사회 일원으로서 보탬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방법을 고민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주시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여건하에 변함없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따뜻한 나눔을 베풀어 주신 박종우 대표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 덕진구, 7만8393필지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

전주시 덕진구(구청장 최병집)는 2024년도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는 2023년 11월 22일부터 2024년 1월 18일까지 덕진구 전체 약 7만8,393필지를 대상으로 조사하며, 가려산 인근 자연 녹지의 근린공원 해제로 표준지공시지가의 변동이 커 급격한 지가변동이 예상되는 지역들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의 목적은 국세와 지방세

등 세금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산정을 위한 기초조사 마련으로 2개 반 총 6명의 인원으로 공적 자료 및 현장조사가 병행 진행된다.

최병집 구청장은 “철저한 특성조사로 정확한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 공정한 세금 부과 및 토지 관련 정책에 대한 기초자료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권익자였다.

전주매일 캠페인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날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김영태의 중추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전주시 제공>

선화당

관풍각

내아